

‘사군자, 맑은 정신 먹빛으로 피어나다’

군산근대미술관, 12일~9월 14일 월강 조인호 작가 초대전 개최

구 18은행 군산근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 오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월강 조인호 작가 초대전 ‘사군자, 맑은 정신 먹빛으로 피어나다’를 선보인다.

전시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겨 그리며 인품과 덕성을 상징했던 사군자(매란국죽)를 중심으로, 작가가 다듬어온 서예와 문인화, 전각 등을 아우르는 30여 점의 작품이 선보여진다.

작품 속에는 매화의 절개, 난초의 고고함, 국화의 청초함, 대나무의 강직함이 작가의 내면과 서체를 통해 먹빛으로 되살아난다.

작가는 “예술은 이론이 아니라 표현에서 완성된다.”라는 철학과 ‘법고창신(法古創新: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의 신념 아래 전통 서법에 근거를 두되 다양한 서체와 안정된 필획, 생동감 있는 구성으로 개성적인 화풍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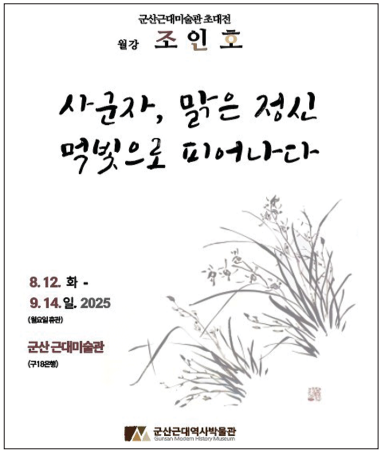
특히 국화를 즐겨 그리는 점에서 작가의 문

인적인 성향을 엿볼 수 있으며, 군산 제일고등학교에서 30년의 교직 생활을 거쳐 교장으로 퇴직한 교육자의 자질도 작품 속에서 묻어나온다.

작가는 “작품을 만드는 과정은 ‘서여기인(書如其人: 글씨는 그 사람과 같다.)’이라는 중앙서예 철학을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글씨와 그림, 도장을 직접 새기는 전각 작업까지 서예를 통한 전통문화의 총체적 계승을 실천 중이다.

올해 77세(희수, 齋壽)를 맞이한 작가는 전북대학교에서 역사학, 원광대학교 대학원에서 서예교육(완당 김정희의 서화론)을 전공하였다.

그간 강안 서예대전, 대한민국 서예대전, 전북 서예대전 등에 참여했고, 7번의 개인전, 대한민국 새만금 서예문화대전 심사위원장, 전북서예대전 이사·심사위원 등을 역임하며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활발하게 서예의 길을 걷고 있다.



월강 조인호 작가 초대전 ‘사군자, 맑은 정신 먹빛으로 피어나다’ 포스터

/군산=김만호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1부 ‘강패와 장구’ (9)

생각해봤소?

- 오 상 근 -

변두란 가정에서 자란 가진 게 많은 아이들은 가진 것 때문에 동식처럼 자유롭게 선을 넘을 수 없어 무대포로 선을 넘어버리는 동식을 이길 수 없었다.

가진 아이들은 가진 것으로 최후에는 동식을 넘어트렸고 승리의 깃발을 꽂았다.

‘동식이라는 그 아이, 고아원 아이면서요?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니까 그렇게 함부로 주먹을 쓰는 거죠? 그런 아이랑 같은 교실에 있으면 정상적인 아이들이 좋을 게 있겠어요?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든지 아니면 퇴학은 안 될 거니까, 무기정학을 시켜서 학교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세요!’

학부모들의 대표인 육성회장은 교장에게 단호한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동식은 학교생활을 일일이 원장 목사님에게 이야기할 수 없었다.

‘아, 학교 뭐하러 다니냐? 우리랑 같이 놀자.’

동식보다 고아원을 먼저 나간 선배들이 동식을 꼬드쳤다.

‘아, 저기 가게 있지? 내가 새우깡 사는 척 할 테니까 뒤에서 너는 삼립빵을 주머니에 넣으란 말이야, 알았지?’

고아원을 나온 동식은 자유가 주어졌으나 배고픔도 동시에 안겨왔으므로 구멍가게에서 빵을 싸냈다. 빵을 싸비는 것을 필두로 과일 행상 수레에서 사과나 복숭아 등을 들고 뛰었다. 길거리에 세워진 자전거를 끌고 가 자전거포에 팔았다.

다 발전해서 남의 집 담을 넘었는데, 결과는 사팔귀정이었다.

소년원에 입소하였고 그곳에서 제대로 학습을 한 뒤 더 발전하여 폭력을 휘둘러 돈을 빼앗고 물건을 강탈하는 행위로 일취월장해버렸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소년원을 반복해서 들어갔다 나오다보니 동식은 괴물로 성장해 있었다.

자신을 고아원에 버린 친부모를 생각해볼지 않은 건 아니다. 그러나 친부모를 그리워할 시간보다 당장 눈앞에 떨어진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공력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곧 동식 자신의 입지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살아야 할 공간이 어디이며 누구와 어울려야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지를 체득하며 그걸 실현해 가는 데 바쁘다면 바쁜 나날들이었으므로 자신의 뿌리가 어디인지 생각할 틈도 없었고, 나중에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

뿌리가 어디이면 그게 무슨 상관인가. 그 뿌리로 지금 당장 무엇을 하랴. 뿌리가 밟고 아파도 웃고 아파도 웃고 좋은 차도 아니지 않겠어? 단 한번도 생모와 생부를 찾기 위해 노력해본 적이 없었다.

세월이 동식의 마음에도 쌓였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맘때쯤이면 어딘가 모르게 몸 여기저기가 저전한다. 뒤통수 어디 갈기도 하고 옆구리 갈비뼈인 것 같기도 했고 아니면 위장 어딘가 인 것 같기도 했다.

한번쯤 슬며시 나를 낳아준 사람이 누구일까. 나를 잉태하게 씨를 던져준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의문이 고개를 든다.

지금 찾아서 무엇을 할까 싶기도 하고, 교도소나 제직처럼 드나드는 건달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고개를 외로 끄고 외면하려 해도 슬픈 영화를 보면 저절로 눈에 눈물이 차오르듯 생부모를 찾고 싶은 마음이 스르르 마음 한 귀퉁이에 차오르는 것이다.

이명주의 말처럼 내 생부모는 농악을 하던 사람들이었을까.

‘생각해봤소?’

그날 저녁 박정수로부터 전화가 왔다. 생각해보고 전화를 달라고 하더니 자신이 먼저 전화를 했었다. 목이 마른 건 마려운 건가.

목마른 놈이 샘을 판다더니 박정수가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이럴 땐 적당히 줄타기를 하면서 뒹겨주는 게 좋다.

“.....그러게 말이요.”

아주 느긋한 말투로 일단 뒹겼다.

‘내가 상상하는 전주 올림픽’ 전국 어린이 한지 미술대회

전주문화재단, 29일까지 접수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은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의 연계 행사로 ‘제5회 전국 어린이 한지 미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유치부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지를 직접 만지고 느끼며 창의적인 상상력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예술 체험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는 ‘내가 상상하는 전주 올림픽’을 주제로 전주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면 어떤 모습일지를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상상해 한지 위에 그림으로 그려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한지는 현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전주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자산으로, 이번 대회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한지의 쓰임과 가치를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된다.

공모는 연령에 따라 △유치부(5~7세) △초등 저학년(1~3학년) △초등 고학년(4~6학년) 총 3개 부문이다. 시상 규모는 △대상(전북특



별자치도교육감상, 부문별 1명) △최우수상(전

주시장상, 부문별 1명) △우수상(전주시의회 의장상, 부문별 1명) △장려상(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상, 부문별 2점)을 포함한 총 15명에게 상장과 함께 문화상품권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참가를 희망하는 어린이는 전주문화재단 한지산업지원센터를 방문해 전용 한지 도화지를 수령한 뒤, 주제에 맞는 그림을 완성해 참가 신청서와 함께 오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접수 방법과 관련 안내는 전주문화재단 누리집(j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회 입상작은 10월 2~12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3층 기획전시실에 전시될 예정이며, 시상식은 ‘2025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 개막식과 함께 진행된다.

최락기 대표이사는 “어린이 한지 미술대회는 전주한지를 다음 세대에 자연스럽게 계승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라며 “올해는 전주 하계 올림픽이라는 미래지향적 상상을 더해 어린이들의 감수성과 창의력이 빛나는 작품들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은행, 다채로운 多문화캠프 ‘여름방학 다다캠프’ 성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JB금융그룹 아움트 캠퍼스에서 2025 다채로운 多문화캠프 ‘여름방학 다다캠프’를 성료했다.

JB금융그룹 다문화 분야 핵심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여름방학 다다캠프

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견문을 넓혀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 및 광주·전남지역 다문화가정 중학생 80명, 직원 자원 봉사자들로 구성된 JB금융그룹 씨앗봉사단 및 관계자 등이 3박

4일 일정으로 금융경제교육, 진로탐색 프로그램, 액티비티 활동, 유튜브 ‘에드머’의 테마 강연, 과학 공학 콘텐츠 스타트업 킷의 ‘박찬후’ 대표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캠프에서는 전북현대모터스 FC와 함께 유소년 축구교실 ‘그린스쿨’을 운영해 아동들이 서로 경쟁하고 협동하는 과정 속에서

건강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협동심과 긍정 에너지 함양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백종일 은행장은 “다양한 문화적 감점을 지닌 아동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진행해 온 다다캠프가 큰 호응을 얻고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금융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괄난 항의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